

“이름도 흔적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어요”



20대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 - 혜릉
단의왕후 1686-1718(33세)

혜릉(惠陵)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조선 제20대왕 경종의 비(妃) 단의왕후 심씨(端莊王后沈氏)의 능이다. 동구릉 능역 안에 있다. 왕후는 청은부원군 심호의 딸로, 1696년(숙종 22) 11세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1718년(숙종 44) 소생 없이 죽었다. 승릉 왼쪽 산줄기에 모셔졌다가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단의왕후에 추봉되었고, 1722년(경종 2)에 능으로 봉하였다. 능제는 인현왕후의 능인 명릉의 제도를 따라 문무인석을 비롯한 모든 석물이 등신대(等身大: 사람 몸만큼의 크기) 정도로 왜소화되고 있으나, 무신의 얼굴은 당대의 유행과는 달리 옛 형식을 따르고 있다.

조용히 살다가 이름 없이 적멸로 가고픈 인생도 있을 것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소멸되고픈 삶도 있을 것이다. 소유와 명예는 번뇌의 씨앗이다. 번뇌에 갇힌 삶은 비좁고 번거롭다. 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승의 흔적을 깨끗이 털지 못하고 두고두고 입방아에 울려야 하는 것이 왕과 왕비의 숙명이다.

혜릉은 20대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가 홀로 잠들어 있는 단릉이다. 권력의 압부에 휘말렸다는 기록도 없고 여인의 아픔을 펼려줬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조선 왕조 최대의 능역인 동구릉에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후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태조의 능처럼 인기가 높아 찾는 이가 많은 것도 아니다. 살아서도 적막, 죽어서도 적막이 그녀의 벗이다.

단의왕후 심씨는 청은부원군 심호의 딸로 태어나 11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고 33세에 자손 없이 죽어 동구릉에 안장되었다. 생전에 왕비 노릇은 못했다. 남편 경종이 왕위에 오르기 2년 전인 1718년(숙종 44년) 2월 7일 병으로 죽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추존되어 묘호와 능호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크게 반겼을 것 같지 않다.

단의왕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다. '세자빈 심씨는 품성이 어질고 어릴



때부터 총명했으며 덕을 갖춰 양전(兩殿: 왕과 왕비)과 병약한 제자를 섬기는 데 손색이 없었다'는 간단한 기록뿐이다. 왕비나 왕실의 여인에 대해 실록은 인색하도록 지면을 아낀다. 죽은 후에는 거의 다 '어질고 효도를 다했고 품성이 아름다웠다'는 의례적인, 접대용 언사 정도로 남기고 있다.

단의왕후는 세자빈의 신분으로 죽었고 자손마저 없었다. 왕실의 여인들에게 왕자생산은 장래보장의 절대적 보편이다. 보편이 없는 여인은 아무리 능력과 미모가 출중해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 자신이 불임이면 신뢰하는 후궁에게서라도 아들 얻기를 간절히 원해 후원한다.

그녀보다 두 살 어린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이미 남자 구실을 못하는 처지였다.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편이 왕이 된들 그녀에게 무슨 영화가 있으랴. 건강마저 골골하는 남편에게 기댈 건택지가 없었다. 오직 슬죽이며 사는 것이 최선이다. 분쟁의 틈새에서 어느 쪽에도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약간의 아심이 있었다면 세자빈 시절에 인현왕후 축이든 장희빈 축이든, 줄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축에 연루된 흔적이 없다. 병약한 남편과 무자식,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혜릉에 들어서니 수북방이 있던 자리에

는 깨진 주춧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쓸쓸한 왕비의 흔적으로 보인다. 혜릉의 정자각과 홍살문은 다 무너지고 없던 것을 1995년 12월에 복원한 것이다.

조선 왕릉의 정자각이나 홍살문은 대부분 산뜻하고 반듯하다. 간혹 단청이 오래되어 고색장연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역사의 풍파가 느껴지지 않는다. 근자에 복원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자각이란

병약한 남편에 후사도 없는 적막한 운명 왕비에 못 오르고 22년 세자빈의 삶 마감

기와집 형태의 건축물이다. 기와집은 지속적으로 손보고 돌봐야 한다. 정성과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건축물이다. 집이란 사람의 숨소리와 손때가 떨어지면 몇 년 못 가서 폐가가 되고 무너져 내린다.

조선 왕릉 정자각은 대부분 한국전쟁 때 불탔다고 하지만, 전화를 입지 않아 멀쩡하게 건재했던 정자각들도 전쟁 이후 돌보는 이가 없어 무너져 내린 것도 상당수다. 조선 왕릉이 1970년에 와서야 비로소 사적지로 지정되고 국가에서 돌보기 시작했

으니 그 이전에는 방치됐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은 문화재 훼손의 주범이란 불명예를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후손의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먹고살기에도 힘들었다는 이유와 함께 그 뒤에 숨는다.

조선 왕릉은 대부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웠는데 혜릉의 단의왕후는 서쪽에 머리를 두고 발을 동쪽으로 향하게 누워 있다. 능의 침향(枕向) 즉 시신의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는가는 민족, 종교, 지역에 따

라 다르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동쪽,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예가 많았다. 고구려와 백제는 5-6세기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북침(北枕)하기 시작했고 신라는 통일 이후 동침에서 북침으로 바뀌어갔다.

이것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국조오례의> 기록에도 조선 왕릉은 대부분 북쪽에 머리를 두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단의왕후의 서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시원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엉뚱한 가설만 세워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동쪽,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예가 많았다. 고구려와 백제는 5-6세기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북침(北枕)하기 시작했고 신라는 통일 이후 동침에서 북침으로 바뀌어갔다.

라. 남편 경종이 묻힌 의릉을 향해 머리를 두고픈 애달픈 심사였을까. 의릉(석관동)은 혜릉(구리시)의 서쪽에 있다. 그러나 이것도 못 믿을 가설이다. 경종의 의릉은 혜릉보다 6년 뒤에 조성되었다.

살아서 영화를 못 누웠지만 가장 장엄한 왕가의 가족묘인 동구릉에 자리 잡아 누웠고 직선거리로 머잖은 곳에 남편 경종이 의릉에 누워 있다. 그러나 왕후의 내심은 이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적멸로 가서 호사가의 관심에서 잊혀질까 바랄 게다. 번뇌도 의혹도 괴로움도 없는 저 세상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게다.

그런 소망마저 이루지 못해 그녀를 지키고 있는 무인석마저 수난을 당했다. 능상을 지키려고 장검을 쥐고 서 있는 오른쪽 무인석의 코가 흉하게 깨져 있다. 누구 무덤인지 개념도 없던 시절에, 석물의 코를 깨서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이후까지 그 속설은 유효한 비망극은 은밀히 통용됐다. 그래서 유적지마다 석물의 코는 흉한 것이 많다. 흉한 얼굴의 장수 일망정 외로운 청상과부의 무덤을 잘 호위 하길 바란다.

글=이우상(소설가 asd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1.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 혜릉 전경
2. 망주석의 세호기 아래로 향하고 있다.
3. 난간석에 새겨진 12자가 뚜렷이 보인다.
4. 무인석의 잘려나간 코와 치아를 내놓고 웃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방 마루판 7000×3500×3300(mm) 가격: 750만원

◆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 조립식평상
TEL: (063) 323-3011~2
FAX: (063) 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02-203482 예금주: 지구산업 광영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진동로11번길 1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 전통
조상의 얼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색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색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0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희담석

www.jawonet.com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절, 생명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존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마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용방법
통창대, 매트리스, 잔디, 모 위아래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고체방출과 간접방출을 중시하여 드립니다. (햇볕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35만원 ●2인용: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제품 사양
· 내용물: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감재질: 모노방사, 황토방 · 크기: 1,000mm×2,000mm · 무게: 11kg

정신 집중이 될 때 머리가 맑아지는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가 격: 45,000원
●크 기: 45mm×45mm

희담석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매트
희담석 베개용 매트
●가 격: 25,000원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 후, (햇볕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희담석 에너지가 방사되는 희담석 매트용 패드
- 아침에 일어나서도 깨운지 않은 분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 무비 활동이 많은 학생 등

제품문의 011-9230-2335